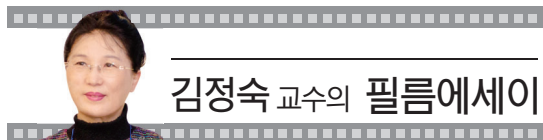


인간관계의 어려움 보여준 ‘어른을 위한 동화’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나카이 타츠유키 감독 ‘후레루’

일본 애니메이션의 탄탄함은 진작부터 장르를 다원화해 왔다. 이 가운데 성장 드라마를 담은 애니는 ‘청춘 애니메이션’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초평화 버스터즈’로 함께해 오던 청춘 애니의 거장 3인방이 영화 ‘후레루’로 다시 뭉쳤다.



나카이 타츠유키 감독 ‘후레루’.

(주)팬 엔터테인먼트 제공

나카이 타츠유키 감독·오카다 마리 각본가·타나카 마사요시 캐릭터 디자이너가 그들이다. 이 연대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26회 부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장상을 비롯한 3부분 수상을 가져갈 만큼 전문적이었다. “수려하고 안정적인 작화, 섬세한감정 묘사, 감성적인 전개”라는 평가와 함께, 수상작 타이틀 ‘후레루(ふれる)’는 ‘접촉하다, 닿다’라는 의미의 동사다.

어린 시절 섬에서 함께 자란 세 소년 아키, 료, 유타는 아이들답게 투닥거리며 싸우다 고슴도치처럼 생긴 신비한 요괴 후레루를 만난다. 마후레 섬의 전설로만 알고 있던 후레루와 친구가 되는 바람에 이들에게는 손을 마주 대면 서로의 속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생겨난다.

세 친구들은 초능력으로 서로 생각하는 바를 읽게

되자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간에 마음이 잘 맞달아 있다 여기며 사이좋게 자란다. 그리고 도쿄로 상경한 스무 살에도 흠 세어를 하며 후레루와 함께 살아간다. 요리에 재능이 있어 주방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키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소통이 서툴러서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진다.

물론, 두 친구들과는 손을 잡으며 소통하지만, 키가 작은 유타는 패션디자인 학원을 다니며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데 자아에 몰입하는 편이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결핍감 등 콤플렉스가 많다. 이 둘에 비하면, 회원 료는 집안 형편상 일찍 경제적 가장 역할을 해서인지 현실적이며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서 셋 중에 리더격이다.

어느날 핸드백을 날치기당하는 나나를 도와주려

던 아키. 아키를 도와주기 위해 료, 료타 그리고 후레루가 뭉친다. 나나는 같이 사는 친구 주리와 함께 스토크를 피해 집을 구하던 중이라 도움을 받은 이들 세 청년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다. 다섯 사람이 된 세어 하우스의 복적거리는 관계망은 크고 작은 에피소드, 예측불허의 후폭풍을 예고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고 있다. 크고 작은 사회의 구성원 관계, 선·후배 관계, 동료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사회적 거리감을 두는 인간관계일수록 좋은 감정만 보여주려 한다. 가까운 관계라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 봐 관계가 틀어질까 싶어 감정의 이면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여 그저 좋은 감정으로 포장한다. 좋은 감정만 전달하고 나쁜 감정을 소거하는 매개체인 후레루처럼.

그렇지만 참고 감추고 포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 감정을 직시하고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터트림으로써 진정성을 공유하기도 하니까. 물론 여기에는, 약화의 경우 수를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약화일로 치닫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처럼 폭풍같이 커지는 약화의 경우를 대비해서 성숙한 숙고와 함께 정성 어린 기술적 소통을 요한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참 어렵다. 영화의 혼란스러운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 엔딩곡 요아소비의 ‘모노톤(monotone)’에 귀를 기울였다. ‘계속 나는, 우리는 혼자만의 세계를 살고 있어... 그렇게 모호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어른이 될 거라 생각했어... 서로 어울린 마음이 닿는 한순간 이세상은 하나로 보였어.’ 영화를 함께 본 K교수는 ‘어린 왕자’가 연상된다 했다. 필자에게도 영화를 보는 동안 연상되는 동화가 있었다. 디자이너 마사요시가 후레루 캐릭터를 고슴도치 형상으로 삼은 것은 고슴도치 몸에 난 침들로부터 방법 레이저처럼 죽죽 방어 당으면 상처가 되는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이미지 표현이었겠지만, 필자는 독일 동화 고슴도치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이다.

고슴도치 무리가 사는 거주지에 추위가 닥쳤다. 추위를 떨기 위해서는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체온을 나누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밀착하면 할수록 고슴도치의 몸에 나 있는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 아프다. 어떻게 하면 뽀족한 침의 아픔을 줄이면서 체온도 나눌 수 있을까, 그 적정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인간관계는 지나친 밀착도, 과도한 거리감도 불길하다. 적정 거리를 고슴도치 무리의 경우처럼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어른을 위한 동화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변한다”



취재수첩

정유철

취재2부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학창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정학까지 받았던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연민 어린 주변인들의 시선 덕분이었습니다.”

‘재심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에서 강연하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했다.

전국적 유명인이 된 그는 “요즘은 대우받는 것이 익숙해졌구나”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털어놨다.

학창 시절 그는 완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방황하던 문제아였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어린 녀석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라며 보내준 따뜻한 시선, “언젠가는 똑바로 설 거야”라고 믿어

준 이웃들의 마음이 그의 삶을 바꾼 힘이 있었다.

결국 그는 사법시험에 도전했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사명감을 품게 됐다.

최근엔 고등학생 시절부터 30년째 수감 중인 인물의 재심을 맡아 “변호사님 덕분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편지를 받았다. “누군가는 끝까지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강연에서 그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분쟁’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의 학창 시절에는 문제가 생기면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 했고, 그래

도 안 될 경우에만 법의 영역까지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법으로 먼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회가 그만큼 여유를 잃었다는 방증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은 어디서 시작돼야 할까?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공교육 현장인 학교일 것이다. 물론 가정이라는 공간은 접근이 쉽지 않은 영역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제2의 사회인 학교에서조차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다면, 과연 인성교육은 어디에서 가능하겠는가?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진행된 교사 실태

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7명이 ‘극심한 소진 상태’라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학습을 넘어 아이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교육이 가능할까?

이는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일 것이다.

강연을 마치며 그는 “무감어수 감어인(無鑑於水鑑於人)”을 강조했다.

겨울 대신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라는 뜻이다.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사람은 관심으로 변한다. 주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왔는지 되돌아볼 때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